

# 전북 혁신교육 정책, 학생 참학력 신장 결과

### '전북 혁신교육 중단연구 3차 연도 연구결과 발표회' 개최... '민주적자치공동체' · '전문적학습공동체' 참학력 성장에 '효과'

전북교육청의 혁신교육 정책이 학생들의 참학력 신장으로 이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소장 최은경)는 26일 도교육청 창조미래(별관) 시청각실에서 '전북 혁신교육 중단연구 3차 연도 연구결과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된 주요 내용은 △참학력 성장 궤적 확인 및 혁신교육 정책이 참학력 성장에 미치는 효과(한미라 책임연구원) △혁신교육정책이 학생의 참학력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자기효능감과 역량기반수업의 이중병렬개개효과(양경화 연구위원) △전라북도 초·중·고 학생의 참학력 발달 유형과 종단적 변화 양상(이순아 연구위원) 등이다.

이번 중단연구는 다양한 혁신교육 정책 중 '민주적자치공동체'와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학생들의 참학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봤다.

2020년 초4·중1·고1을 대상으로 3년간 반복·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를 실시해 전북 혁신교육에 대한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미래 전북교육과 혁신교육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그 결과 '민주적자치공동체'와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참학력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기반으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 문화가 발전하면서 혁신교육의 정책 목표인 참학력 성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미라 책임연구위원은 "3년간 동일한 학생을 대상으로 패널 자료 분

석을 통해 전북 혁신교육 정책의 효과로 참학력이 성장했음을 확인했다"면서 "참학력 성장은 처음 시점값도 개인간 차이가 있었고, 성장 폭에 있어서도 모든 학생이 일정 비율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 혁신교육 중단연구를 통해 혁신교육 정책에 대한 효과성을 검증한 만큼 멈춤 없는 교육혁신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경화 연구위원은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역량기반수업을 매개로 했을 때 전문적학습공동체와 민주적자치공동체가 학생들의 참학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학생들에게 역량기반수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치역량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순아 연구위원은 "전라북도 학생들의 참학력 발달에 학생 개인의 학습효능감,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역량기반 수업이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중학생 시기에는 교사 및 친구들과의 사회적 관계도 참학력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면서 "학생들의 참학력 성장을 위해 학교, 교사,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고, 학교급과 발달 유형별로 주된 영향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학력이란 '지식 위주의 학력을 넘어서서 지식, 가치와 태도, 실천이 조화를 이뤄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힘'으로, 스스로 배우고, 새롭게 생각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힘을 세부 능력으로 설정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 '평화와 만나는 평화길 순례' 운영

### 도교육청, 동학동민운동 현장 평화기행 진행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평화와 만나는 평화길 순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순례길은 6.15 남북공동선언 22주년을 기념한 평화 기행을 통해 평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는 28일 정읍과 고창 일대로 떠나는 평화 기행에는 평화통일교육 교육지원단과 사제동행 평화통일교육동아리 및 통일에 관심 있는 교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다.

정읍과 고창 일대는 동학농민운동의 대표 유적지들이 집합된 지역으로, 이번 평화 기행의 목적지 역시 이와 관련된 곳들이다.

먼저 오전에는 동학혁명모의탑과 사발봉문자성지, 무명동학농민

군위령탑 등이 있는 정읍 죽산마을을 거쳐 황토현 전적지에서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조광환 소장의 현장 강의를 함께 한다.

오후에는 고창으로 이동해 정봉준 장관 생가터와 무장읍성, 고창읍성 등을 탐방, 평화 세상을 향한 동학농민군의 합성을 되새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동체 정신을 갖고 서로 돕고 의지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동학사상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하는 평화 사상일 것이다"면서 "이번 기행을 통해 평화통일교육을 실천할 방법과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학교에 연계하는 방법도 모색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천호성 후보 "도내 모든 학생 해외수학여행 3번씩 보낼 것"

### '전북교육 5조원 시대 '최강 교육·복지정책' 펼칠 것'...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화·중고생 통학비 제로화·학생 기본수당 30만원 이상

천호성 전북 민주진보교육감 단일 후보는 전북교육예산 5조원 시대를 열어 최강교육복지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천 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외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초중고 모든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모든 학생들에 대해 초중고 12년간 3번씩 해외수학여행을 보내기로 했다. 수학여행은 현재 교육청에서 1인당 초15만원, 중20만원, 고30만원 지원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모든 학생에게 참고서

를 지급기로 했다. 참고서 구입비로 초등은 연간 5만원, 중·고는 연간 10만 원을 도서상품권이나 지역서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 등으로 줄 예정이다.

세번째로, 학생 개인별 스마트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것이다. 이는 미래형 교육체제 기반을 구축하고, 언제 어디서든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번째로는 학생들의 통학비를 제

로화하기로 했다. 도시지역 중고생에게는 시내버스 요금을 지원하고, 군지역은 통학버스와 통학택시 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다섯번째는 회귀 난치성 질환 학생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것이다. 암이나 희귀질환으로 투병하는 학생들에게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매년 의료비 전액을 지원한다.

이는 부모님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모두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여섯째, 유아교육을 전면 무상화하겠다는 것. 도내 모든 유치원 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를 안심하

고 키울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 학부모 원비(학부모 부담금) 부담을 제로화하고, 모든 유아가 무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초중고 학생과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기본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연간 최소 30~50만원씩 교육청 예산으로 지급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천 후보는 학부모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서 우리 지역을 이기르기 좋은 전북으로 만들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GTEP사업단 학생들이 독일 무역 박람회에 참가해 바이어와 상담하고 있다.

## 전북대 GTEP사업단, 해외시장 개척 본격화

### 독일 전시회·태국 무역 박람회 참여... 해외 바이어 상담 활동

전북대학교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기양성사업단(이하 GTEP사업단)이 코로나19의 완화와 함께 본격적인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GTEP사업단 학생들은 5월 24~26일까지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열리는 Inter ZOO 전시회에 전라북도 기업인 '영인바이오'와, 2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2022 태국 방콕 식품 전시회'에 지역 기업인 디자인 농부'와 각각 참여해 해외 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6월 2~5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하는 2022 베트남 국제 프리미엄 소비재전에 지역 기업인 '캠스텍', '휴먼피코스트' 경기도 기업인 '실리파'과 함께 참여해 해외 현지 시장분석과 경쟁업체 제품 분석, 협력업체 상품 분석, 바이어

상담 및 현장 계약 등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같은 활동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 시장 개척 등에 많은 제한을 받았던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판로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민호 단장은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외 전시회에서 바이어들과의 만남을 통해 학생들의 무역 실무 감각을 쌓고, 동시에 지역 중소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BK21 R2G 프론티어 미래무역인재양성사업단과 모의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대 GTEP사업단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하고, 한국무역협회, 전북도청, 전주시청이 지원하는 글로벌 무역인재 양성사업이다. /정은성 기자



## "성파로 검증된 청렴한 교육감" ... 서거석 후보 지지 선언 잇따라

### 도내 전·현직 대학교수 515명·청년 경제인 100인 등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의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먼저, 전북 지역 전·현직 대학교수들은 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2년 기존 교육체제를 확 바꿀 적임자로, 이미 성과로 그 능력을 검증받은 서거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거석 후보는 총장 재임 시절 위기의 전북대학교를 명문대학

으로 만든 바 있다. 그가 이룩한 성과는 그의 청렴과 소통, 섬김의 리더십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 후보의 '학생중심 미래교육'이라는 그의 슬로건 역시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교육철학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도내 청년 경제인 100인은 이날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앞에서 능력 있는 교육감 서거석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청년 경제인들은 서 후보가 전북대 총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우리는 대학생이었다. 재학생 만족도 1위, 가장 잘 가르치는 대학 전국 1위, 20년간 가장 발전한 국립대학 1위 등 눈부신 성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서거석 후보는 청렴하다고 했다. 그는 총장 연임 과정

에서 까다로운 청와대 인사검증을 두 번이나 거치는 등 도덕성과 청렴성을 이미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들은 "능력이 검증된 서거석 교육감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며 "그가 교육감이 되면 어려움에 빠진 전북교육에 희망을 불어넣어 전북교육 대전환을 이루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 대학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만전'

### 전북대, 8월까지 학내 교통안전 지도·단속·캠페인 추진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학내 교통안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5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대학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주 1회 오전 2시간씩 학내 교통안전 지도 및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사무국 직원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모 미착용과 피속 단속, 그리고 교통안전 홍보 활동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5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규정 강화에 앞서 전북대는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자체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마련,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

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학내 곳곳에서 고위험 구간과 속도제한 구간, 교통안전 표지 등 다양한 안전시설을 설치했고, 학생에 안내 문자 발송과 지속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쳐왔다.

박성수 사무국장은 "전면 대면수업이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학내 이동량과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하게 됐다"며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대학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한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교육대학원, 후기 신입생 모집

### 석사학위과정 83명... 6월 2일까지 온라인 접수 신청

전북대학교는 2022학년도 후기 교육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모집인원은 석사학위과정(제교육) 83명으로 원서접수는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웨베아플라이(https://www.uwayapply.com)에서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입학원서와 수학계획서, 최종학교 졸업(예정) 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교원자격증 사본, 경력

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이며, 5월 27일부터 6월 3일까지 교육대학원 행정실(사범대 본관 2층)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6월 17일 오후 2시 20분 필답고사, 이날 오후 4시 구술 및 면접시험이 진행되며, 7월 6일 오후 3시 전북대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로는 전북대 교육대학원 행정실(063-270-2224)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비전창업축제 성료

### 청년 창업가·창업 전문가 초청

전주비전대학교 창업교육센터는 26일 대강당에서 2022년 비전창업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창업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기업가정신 함양과 창업마인드 고취 및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2016년부터 시행했다. 청년창업가 및 창업전문가들을 초청해 특강과 토크쇼로 진행했으며, 재학생 300여 명이 참여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날 (주)시그널 유민수 대표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월 천만원 대표가 되기까지', (주)더저글 임혜영 대표의

'창업준비를 해볼까?', (주)다른 코리아 김진한 대표의 '대학창업,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의 특강이 이어졌다.

행사에 참여해 채용 상담을 받은 A 학생은 "관심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자를 가까이에서 만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며 "비전창업축제를 통해 비전대의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정상도 총장은 "포스트 AI 시대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소통 기회 제공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